1) 모네 <La Japonaise> // 일본 기모노를 입고 있고, 제목은 ‘일본여자’ but 서양 여자. 모델은 모네의 아내. 일본과 서양의 완벽한 조합.

“일본미술은 영원히 우리의 것과 하나가 된다. 이것은 우리의 피와 혼합된 핏방울 같다. 이것을 다시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은 지구상에 없다.”

1883년 5월 <일본예술>의 첫 호 서문에서 – ‘사무엘 빙’ <- 그 당시 동양 미술을 했던 화상

Japonisme – 일본 미술에 받은 영감을 조형미술에 다양하게 응용하여 새로운 독창적인 표현양식을 만들어내는 것.

브라크 몽(Felix Henri Bracquemond, 1883~1914) – 판화가. 1856년 호쿠사이 <망가> 발견

일본작품 대중화 시킨 사람들 - 일본 연구학자 컬렉터 화상.

인상주의자들이 이에 심취. 인간은 미의 전형으로서 위대.. –서양 전형

너무나 평범하게 씨름하는 장면, 젖먹이는 장면 등등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게 됨. <-프랑스 인상주의자들이

2) 가쓰시카 호쿠사이 <Sumo>, from Manga // 유독 프랑스 파리에서만 높게 평가받음. 미켈란젤로와 같은 대가로 인식되었음. (다른 곳에서는 과대평가 되었다고 생각). 프랑스 사람들이 왜 유독 일본 문화에 감명받았는지(감화줌)? ->Japonisme 현상은 일본 미술 우끼오에 영향.

일상생활을 포착해서 그린 것이 우끼오(목판화)->일본에서는 서민용

호쿠사이, <후지산 36경>, 19세기 초

평범한 사람들의 장면.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만 그려왔던 프랑스 사람이 볼 때는 마치 낮은 자들을 위한.. 당시 프랑스 혁명(자유 , 평등, 박애) 겪었고, 이 사상들을 지지하는 진보주의자에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 지게 됨. 우끼오는 낮은 자의 혁명을 상징.

브루주아들의 일상장면 등 묘사하는데 영향, 감명 줌.

프랑스 등 남유럽에서는 풍경화는 회화에서 가장 낮은 장르. 풍경화는 이름없는 화가들이나 그리는 것.. 풍경화는 비천한, 낮은 장르로 취급.

But 근대 미술에서 풍경화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그 시점에 프랑스 혁명의 영향.

낮은 자, 낮은 곳에 대한 관심->풍경화가 크게 부상. 그 시점에 일본의 목판화를 보게 됨.

풍경화가 회화에서 가장 주요한 주제를 떠오르는데 있어 우끼오에가 용기, 영감을 주었다.

->풍경화가 크게 급부상하는데 있어 우끼오에가 큰 영향을 주었다.

3), 5)마네

동, 서양의 교류 – 독창적으로 변환시킴 🡺자포니즘

일본사람들의 정확한 기하학. 창살, 미닫이문. 풍경을 봐도 기하학적인 사물을 두고 그 뒤에 뭔가를 배치하는 것은 베일 같은 느낌을 준다. 인상주의자들은 이를 공간분할, 평면성이라는 문제에 이용. 창살 구조가 주는 격자 구조의 엄격함(추상적 구조).. 이와 같은 기하학적 엄격한 구조를 근대사회의 냉정함, 근대사회의 도시화 산업화의 분위기와 연결시킴.

7)구스타브 카유보트 <발코니> // 카유보트는 부자집 아들. 마네의 <발코니>를 그 당시 돈으로 3-5억 주고 삼. 카유보트는 그 당시 근대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삼. 본인도 근대화가들과 같이 어울리며 작품 활동도 함. 마네를 좋아하고 일본목판화 많이 수집함.

발코니 19c 중반 건축기법 처음 시작. 마네는 앞모습을 보여주나 카유보트는 뒷모습을 보여줌.

근대화된 파리를 바라보는, 산업화에 대한 경의. 뒷모습으로 먼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일본 목판화에서 나오는 장면. 일본의 영향. 카유보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 목판화.

17c에 이미 일본에 가서 일본에 원근법 등을 가르쳐주며 일본에 목판화 발전. 19c에는 오히려 일본이 서양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 목판화가 모더니티에 상징이 될 수 있다. 프랑스인들이 혁신적으로 바라봤다.

마네 <발코니>

8) 구스타브 카유보트 <발코니> // 산업화 돼가는 파리를 바라본다. 근대성에 대한 경의

고야 <발코니의 여자들> // 자연에 대한 경의

10) 서양 미술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일본 목판화 좋아했고, 자신감 있었으나.. 전적으로 일본 목판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구스타브 카유보트 //산업화에 대한 경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유사.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 자연에 대한 숭고에 대한 경의.

11)구스타브 카유보트 <Le Pont de I’Europe>// 일본 목판화를 근대성과 연결시킨 전형적 작품. 긴장감 있으면서 역동적인 사선의 구도. 일본 목판화의 사선 구도에서 영향 받음. 긴장감, 역동성을 주어서 유럽인들에게 근대성과 결합될 수 있는 시각적인 조형 예술로서 받아들여짐(우끼오에의 사선의 원리).

우타가와 히로시게 <Cotton Goods Lane, Odenma-cho>// 사선이 굉장이 동적인 느낌. 일본 사람들이 르네상스 기법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인 결과. 19c에는 서양사람들 눈에는 긴장감 동적이다고 판단 그것을 근대성을 받아들이는 시각적인 조형예술로 사용하자.

12)호쿠사이, <후지산 36경>, 19c 초 – 만화같다. 드로잉같이 생각.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음.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 미켈란젤로와 같은 대가로 인식함. 왜 유난히 프랑스에서 과대평가가 되었을까???

13)호쿠사이, <The Great Wave off kanagawa> // 비대칭의 리듬.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고 영향받음. 이제껏 서양사람들은 대칭만 생각. 비대칭-효과적이고 자유스러운 느낌 받음. 프랑스 사람들은 자유라는 느낌을 일본 목판화에서 받음. 이 파도가 굳이 일본 근해가 아니라 만화 같다.->보편성. 서구에서 모든 아트가 지향하는 것은 보편성. 일본 목판화 보며 지엽성을 ‘보편성’으로 전환시키는 아이디어를 서양사람들에게 주었다.

프랑스 파리의 인상주의,진보주의자들은 비대칭, 비규칙성 발견, 여기서 자유 평등의 개념을 가졌다. 🡪비대칭성과 비규칙성은 자유를 느끼게 해주고, 보편성으로 승화하면서 그 보편성이라는 것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을 끌어냄. 낮은 자의 혁명.

프랑스 사람들은 호쿠사이 같은 일본 목판화들의 정치적 성향을 알지도 못함. 일본 만인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라 생각. 이러한 세상은 프랑스 사람들의 이상. 일본 공예품도 들여옴. 일본 공예 발달됨. 유럽에서는 공예품 천대받음. 공예, 풍경 속에서 인간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을 계급 없는 사회라고 생각.

모든 학문의 기초인 인문학의 위치에 올라있었던 것이 회화 조각 건축. 공예는 장인 계급의 것으로 생각.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원하게 됨. 일본의 공예 회화 보면서 계급의 차이 없으며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 프랑스 진보주의자들이 바라는 세상. 프랑스 근대 미술가들은 거의 99퍼가 진보주의자. 그래서 일본 목판화에 굉장히 열광. 보주주의자 왕정주의자들은 일본 목판화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음. 프랑스에서 근대미술이 발달하게 된 주요 인물들인, 공화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의 눈에 일본의 목판화는 낮은 자의 혁명 만인이 평등한 사회로 받아들여짐. 순수하게 조형법으로 보면 명암법 조형법 몰라도 구도 완벽 색채 순수.. 순수한 색채 평면성 왜곡된 원근법 등을 자신의 미술 원리(하나의 근대적인 조형성)로 받아들이게 됨.

14) 호쿠사이의 목판화 <파도>를 이용한 클로드 드뷔시의 <바다> 악보 표지, 1905, 파리, 국립도서관. / 호쿠사이, <The Great Wave off kanagawa>, 1830-1.

17) 도미에, <삼등열차> // 사회적 사실주의. 이와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미 형성되고 있었음. 19c 프랑스시민혁명 산업혁명 일어났었다. 전통적인 관습 제도가 공격을 받게 됨.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남. 왕권이 신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선포. 그 해 11월 2일에 성직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성직자의 권위도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개념으로 바뀌게 됨(선포).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 이런 와중에 우끼오에가 전해짐.

진보주의자들이 우끼오에를 낮은 자의 혁명으로 받아들임.

18) 히로시게, <에도 100경> 중 <아타케대교의 소나기>, 1857 //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우끼오에. 이 것을 보고 도미에의 삼등열차 같이 느낌. 낮은 계급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임. 공화주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임. But 일본은 아예 혁명이 없는 나라. 오히려 한국이.. but 프랑스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꿈꾸는 이상 사회로 받아들임.

시대적 배경(19c 유럽) – 자포니즘 열풍

일본목판화 – 우키요(떠다니는 세상의 그림)에 : 에도시대 서민생활의 풍속화.

실제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닌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세계를 표현하고 재구성함.

모네 – 실제 눈에 보이는 모습 전경, 후경의 우열 x

후쿠사이 – 자신이 알고있는 세계 전경, 전경이 차등o.

구도 – 한 쪽으로 치우침. 앞이나 중간 넓은 공간. 물체나 사람이 짤린 구도.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점.